

<2014년 9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 또 행할 자는 자신이니, 자기에 대해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마음과 정신을 잡고 다스려야 된다. 그런 자가 성공한다.

2. 욕심만 성공했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니다.
욕도 영도 다 성공해야 성공한 것이다.

3. 욕적인 문화와 세상의 삶만 연구하며 살지만, 그것은 욕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더욱 자기 문제에 빠지게 하여 고통이다.

4.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구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

5. 과학으로 <뇌>를 연구하면, 엄청난 도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를 알 수가 없다. ‘영원한 뜻’을 두고 창조했는데, 과학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알겠느냐.

6. 하나님은 오직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시대의 때’가 되면 <구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7. <뇌의 근본>은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에게 가르쳐서 그가 시대를 잡고 나가게 하시며, 최고로 차원 높은 천국에 가게 하는 ‘휴거 역사’를 이루신다.

8. 하나님은 단계별로 역사해 오셨다.

<구약>은 ‘육적 차원’으로 발달시키며 이끌어 오셨고, <신약>은 ‘혼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오셨다.

<성약>은 ‘최고 차원 높은 영적 차원’으로 이끌리며 ‘혼과 영’에 대해 가르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9.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 보낸 자가 살아 있을 때’가 최고 절정기다.

10. 욕과 혼과 영을 모두 완성시켜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룬다. 고로 마지막 섭리역사에서는 ‘시대 보낸 자’를 통해 꼭 욕과 혼과 영을 완성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 ‘휴거’시키신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마지막 섭리역사 때는 당세에 정녕 <뜻>을 이루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신다. 그로 인해 성약역사 1000년 동안 후대에서 찬란하게 역사를 펴 나가게 하신다.

12.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시대 보낸 자를 온전히 안 자’를 쓰시며 <시대의 뜻>을 이루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신다.

13. 하나님은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시대의 핵심적인 것>은 항상 ‘시대 구원자’를 쓰고 나타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14. 기도를 깊이 하면, 자체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게 된다. 그때 성자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게 된다. 혼과 영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 단계에서 더 기도하면, 오는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는 단계로 간다.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성자를 부르며 대화해 보아라.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고서 대화해라. 그러면 대화가 된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

15.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핵심으로 <뇌>를 창조하셨다. 그리함으로 인간끼리도 통하게 하셨고, <더 높은 단계의 뇌>로 창조주 신과도 통하게 하셨다. 고로 누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하려 하면, ‘육적인 뇌’가 아닌 ‘영적인 뇌’로 통할 수 있다.

16. 하나님과 통하려면, 먼저 ‘땅에 보낸 자’와 통해야 된다. 그리고 ‘성자’와 통해 보고 ‘성령님’과 통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면 된다. 삼위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뇌’를 통해서 그 차원으로 통하게 된다.

17. 기도의 스위치, 대화의 스위치다. ‘영적인 뇌’를 통해 <기도와 대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하기다.

18. <깨달음>으로 통하기. <느낌>으로 통하기. <마음의 음성>으로 통하기. <영감, 직감>으로 통하기. <감동>으로 통하기. <꿈>으로 통하기. 낮에 <만물>을 보면서 깨달으며 통하기다.